



Music: 새벽길

## [강추강추] 세월아 너만 혼자 비켜 가거라

나이가 들수록  
빨간 고추의  
아름다운 일생처럼  
살고 싶으니

아까운 청춘은  
되돌려 놓고  
세월아 너만 혼자  
비켜 가거라

늙을수록  
더 빨갛게 빛을 내며  
생을 마감하며  
땅에 떨어질 때

뒷모습까지  
아름다운 적색의  
단풍으로 살고  
싶으니

꿈 많던 젊음을  
되돌려 놓고

열두 달 달력아  
너 혼자 넘겨라



고목이 될수록  
더 아름다운  
꽃을 피우는  
홍매화처럼 살아가는  
나이니

꽃피던 시절은  
멈추게 하고  
낙엽 지는 시절아  
너만 가거라

오래 묵은  
향나무의 향기가  
더 진하듯

나이 들어도  
인생의 향기를  
잃지 않고  
살아가고 있으니

아름다운 추억은  
멈추게 하고  
시곱바늘아 너 혼자  
돌아가거라



수없이 밟혀도  
다시 일어나는  
길섶에 흔해빠진  
민들레처럼

수난을 겪으며  
살아온 인생이니  
사랑할 때 행복은  
멈추어 살고

이별할 때  
아픔아 너만 혼자  
가거라

아직은  
비 오는 날엔  
빨간 우산을 쓰고  
빨간 구두를 신고

거리를  
활보하고 싶은  
꿈을 버리지 않고  
살아가는 나이니

즐거웠던  
순간은 멈추게 하고

불행했던 순간아  
너만 혼자 가거라

□ 좋은 글 중에서 □



우리 벗님들~!  
健康조심하시고  
親舊들 만나  
茶 한잔 (소주 한잔) 나누시는  
餘裕롭고 幸福한  
나날 되세요~^